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세요,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 21면에서 계속

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놔라, 이 우주 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믿고 거기에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응?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려.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를 지었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의, 대뇌 속의,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 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중략)

그래서 우리 국기에도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 놨죠. 둘이 아님을 알라고 둥그렇게 그려 가지고는 그 안에다가만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 놨죠? 가장자리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삼(三), 사(四), 오(五), 육(六)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근본은 인간의 근본이요, 인간의 근본은 천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공부 하는 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못났을 때, 나 못 배웠을 때, 나 가난했을 때, 나 병신이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어. 모든 거를 주인공이, 모두 결집된 주인공만이 바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저 뉴욕의 어딘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산호세 갔을 때도 그렇고, 댁에처럼 뇌성마비로다가 그런 건이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야단이 났었다고. 그런데 애가 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이 지극하고, 외삼촌도 또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어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아주 출중한 어린애가 돼 버렸어.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내 주는 것도 스님이지마는 그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 우리 이 방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앉았어. 밝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이, 한 사람만 이런 도리를 깨치고 나간다면 그 가정을 다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어,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 하나만 켜면 항상 밝으니까 남도 밝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천궁행해라 이겁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가 결집돼서 그 현상세계에서 사는데 모든 게 악화되고 병고액난이나 가난이나 그것이 성하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주의 법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느 두 남매가 연년생인데 아주 어려웁게 탄생을 해서 세 살이 되고, 하나는 두 살이 되었는데 부모가 그만 다 죽어 버렸어요. 일 년 내에 그냥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보니깐 두 어린애는 고아가 돼서 이리저리 떠돌게 돼서 어느 스님네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하나는 비구 처소로 가고 하나는 비구니 처소로 가게 됐죠. 옛날 얘깁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로만 듣지도 마시고 옛날 얘기로 안 듣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하나는 열일곱, 여덟이 돼 오고 하나는 열아홉, 스물이 됐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난데없이 그냥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세히 들어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십만 년 전에 우리 옥황국(玉皇國)이, 천지옥황국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됐다. 그 혼란이 오게 되면 벌써 세상이 풍비박산이 되고 큰 병폐가 생기고 멸망할 수 있는 이치가 있어 우리가 보연지불을 생산해서", 큰 별을 생산했다는 얘기죠. "생산을 해서 그 병폐를 다 막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 보연지불은 지금, 그 큰 별은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백 년 후에 그것이 재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백 년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즉 말하자면 장마가 들어서 흙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바람이 요동치듯 불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어서 밝은 해도 비치지 않고, 달도 비치지 않고 그럴 때, 백성이 임금을 잃게 되고 그냥 헤매고 있을 그때, 또는 임금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이 임금을 무시하고 또 임금은 임금대로 그렇게 무시하니까 해 나갈 수 없고, 서로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모두 사생(四生)들 마음이 흩어져서 온통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없고 병고액난들이 생기고 산란이 오게 될 테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러한 문제가 오걸랑은 올라가 도를 닦아서 빨리 재림을 하게끔, 네 마음이 지금 그 별, 즉 말하자면 보연지불로 같이 계합이 된다면 큰 별이 다시 재림이 되느니라. 재림이 돼서 이 세상을 다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아니 한다면 세상은 앞으로 전부 망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테니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오백 년 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백 년 전이 되고 바로 저 세상은 오백 년 후가 된다면 한 찰나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한 찰나지마는 공부를 못 한 사람에게는 오백 년이 오백 년이지, 뭐.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바로 재림되게 해서 광명을 되찾아서 그 옥황국(玉皇國)을 살림으로써 이 세상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융성해질 수 있고, 재난이 점점 줄어들고, 경제가 융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느니라. 이러면서 그 아이는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재림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그 악인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없애는 게 아니니라. 대마(大魔)는, 모습 없는 악의 모습을 태어나게 해서 부하로 삼아 우리 선국(善國)을 아주 짓밟고 그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기 옥황국의 천지에 혼란이 오면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거기가 편안하면 여기도 편안하니라." 이거거든요.

또 말씀을 하시길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으로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이래서 많아졌느니라. 그러나 그거를 밝은 빛으로써,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써 안아 준다면, 비춰 준다면 그 무리는 다 스러지고 말아 버리느니라.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스러지느니라."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림자다 이거야. 모습 없는 모습, 그림자. 그러니까 "그건 실존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큰 별이 재림이 된다면, 그 광명으로써, 광력으로써 모든 것을 비추어 주면 그것이 스러져서 녹아 버리니 그것이 바로 자비니라.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선하게끔 해서 하나로 만드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천 년이 되고 또 십억 년을 되돌아서 다시 또 되면, 사람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모두가 다시 악의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패망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은 패망 후에 올라설 수도 있고, 또는 전체가 타 죽을 수도 있고, 전체가 물에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느니라. 그러니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리는 마음이니라." 마음의 그 모든 도리를 알아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계합이 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하면 저 우주 옥황국에서 그 큰 별들하고도 같이 계합이 돼서 우주 천국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편안하고, 거기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지붕 위에서 막 혼란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아래서는 지금 거기 쳐다보고 모두 그냥 뭐…, 바람이 불고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돌이 구르고 물이 치닫고 그냥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혼란이 오면은 그냥 안절부절못하고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말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소승이다 대승이다, 체계가 없느니 있느니 이러한 혼란에 빠져서 자꾸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전부 이 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신다면, 또 작업을 하시되, 안 되는 것도 한 찰나고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찰나인데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밖에 더 있나?' 하고, 병을 앓더라도 '거기서밖에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난이 와도 '거기서밖에는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중생을, 자기 몸 안에 있는 중생들부터 다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러니 우리 한마음 도리 이것이, 물러터지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남이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 둡시다.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우리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깨지면 그 응고된 물은 항상 흐르고 녹았다, 흘렀다 하고 그렇게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지수화풍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분이 안 계신다면 요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알든 모르든 그걸 제껴 놓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것도 떡그릇인 줄 번연히 알면서 떡그릇에 엎드러진다.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봐 가면서 간다. 남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 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 함이 없이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력이 오고 감이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설된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서 지혜롭게 참,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중용하셔서 실천으로 궁행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요만하다면 요만한 거밖에 담기지 못하는데
그냥 빨리 성장하라고 막 그 에너지를 들이부으니
이게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